

지역 상장법인 결산실적 '풍년'...순이익만 8조원

매출액 4%↑...한전 순이익 774% 증가

DSR제강·금호건설 등 5개사 흑자 전환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의 실적이 개선되며 순이익이 500% 가까이 증가한 8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역 내 비중이 가장 큰 한국전력을 제외해도 지역 상장법인들의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16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의 2025사업연도 결산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6개사 중 감사의견 비적정인 다이나믹디자인을 제외한 15개사와 코스닥 21개사 등 36개사의 매출액은 107조5584억

900만원으로 전년(103조3950억7600만원) 대비 4.03% (4조1633억3200만원 ↑)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24년 3조9637억1300만원에서 지난해 9조5470억8200만원으로 140.86% (5조5833억6900만원 ↑) 늘었다. 순이익도 같은 기간 1조3506억8900만원에서 8조466억5400만원으로 495.74% (6조6959억6500만원 ↑) 급증했다.

먼저 지역 전체 매출액의 88.8%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매출액은

95조5361억6400만원으로 전년(91조6465억8200만원) 대비 4.24% (3조8895억8200만원 ↑)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69.68% (5조3733억4200만원 ↑) 늘어난 8조5400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7조2499억으로 무려 774.18% (6조4205억6100만원 ↑) 가 증가했다.

한국전력을 제외한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실적도 금호건설, 화천기공 등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매출액은 12조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 (2738억원 ↑) 증가했고, 영업이익(1조71억원)과 순이익(7968억원)은 전년보다 26.35% (2100억원 ↑), 52.83% (2754억원 ↑) 각각 늘었다.

18개사가 순이익 흑자를 거둔 가운데 DSR제강, 금호건설, 다스코, 강동씨앤엘, 위니아에이츠 등 5개사가 흑자 전환했다. 11개사는 적자가 지속했으며 DH오트웨어와 와트스코리아 등 2개사는 적자로 돌아섰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12개사의 매출(100조6021억원)은 6.39% (6조406억원

↑) 늘었고, 영업이익(3조8056억원)과 순이익(1조2604억원)도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코스닥시장 매출액은 오이솔루션, 강동씨앤엘 등의 매출액이 늘면서 1조2488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85% (105억3100만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125억2800만원)에서는 적자를 확대했다. 순이익(127억7900만원 ↑)의 측면에서는 우리손에프엔지의 순이익의 증가 영향 등으로 적자 폭은 축소됐다. 연합뉴스 기자 djawody0316@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반대” 농협 조합장, 자율성 훼손 우려

정부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추진에 대해 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응답자 871명 가운데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했다. 사실상 압도적 다수가 현행 간선제 유지에 무게를 둔 셈이다. 개편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 대한 거부감이 두드러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에 대해서는 96.8%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농협 감사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분리·설치하는 방안에도 96.4%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약 1100명의 조합장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의 명분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관료 중심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경우 조직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유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응답자들은 직선제 도입이 농협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선거 과정의 과열과 외부 정치세력 개입 가능성, 이에 따른 조직 내부 갈등 심화 등도 주요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비용 문제 역시 부담 요인으로 부각된다. 직선제 전환 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데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재원이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품목 단위 조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 618개 품목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농업인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선거 과정과 정치화,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농협 경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시상...116명 입상

33개 직종 총 280명 참가 SW마이스터고 최다 입상

광주시는 16일 한국광기술원에서 속련기술인들의 축제인 '2026년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주관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11개 경기장에서 열띤 경합 속에 진행됐다.

금형 등 33개 직종에 일반인과 학생 선수 280명(전북특별자치도 2명 포함)이 참가해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겨룬 결과, 총 116명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달별로는 금메달 35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29개가 수여됐으며, 이 밖에도 우수상 1명과 장려상 16명이 선장대속련기술인제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특히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는 클라우드컴퓨팅과 IT네트워크 시스템 등 5개 직종에서 19명의 입상자를 배출하며 최다 입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자동차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 역시 기계설계/CAD, 공업전자기기 등 6개 직종을 석권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둬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금·은·동메달 및 우



광주시는 16일 한국광기술원에서 속련기술인들의 축제인 '2026년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 수상자에게는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뛰어난 기량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값

진 성과를 거둔 입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선수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해준 교사와 관계자들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속련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 청년 일자리공제 30명 추가 선발

6월 30일까지...2년간 500만원 적립하면 1000만원 받아

지역정착·장기근속·자산형성 등 청년·기업 미래 뒷받침

광주시는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 30명을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가 선발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 만기 때 1000만원의 공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청년은 광주에 뿌리내리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해주는 상생형 지원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은 중도해지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2월 2026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 높은 관심 속에 접수를 조기 마감했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에는 현

재 151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02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모집 인원 51명에 이번 추가 모집 30명을 더해 총 38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지역에 위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39세 광주 청년이다.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6357원)에 해당해야 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소득·기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참여기업에는 '광주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세금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또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하거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613-5996)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윤숙 시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은 청년과 기업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국세청, '찾아가는 국세심사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복전주세무서에서 전복권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전복권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광주

국세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거주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를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 등 권역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 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원격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

뉴욕 왕복 유류할증료 112만8000원

유가 고공행진에 5월 국제선 역대 최고 '33단계' 적용

중동 전쟁이 한 달 반 넘게 이어지면서 오는 5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단계로 뛰어올랐다.

한국항공 미국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만 이번 달과 비교해 왕복 기준 최대 50만 원 가량을 더 내야 하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우 평균값(MOPS)은 1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로 적용 가능한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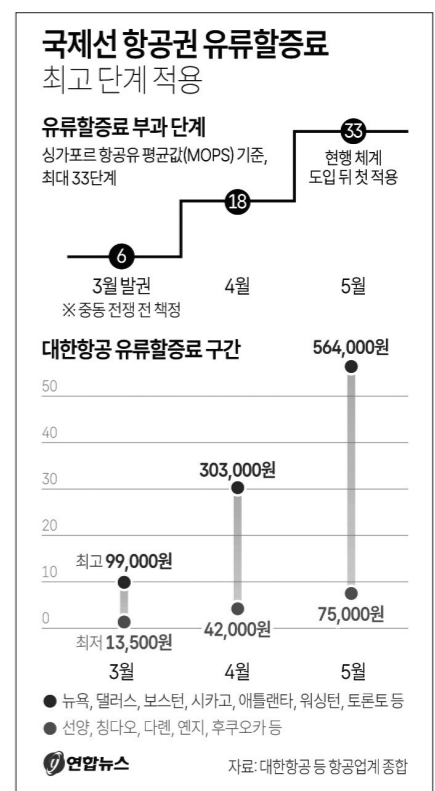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마다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5월 적용되는 단계는 이달 기준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가 올랐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한 달 사이 최대 폭의 상승이며, 33단계가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쟁 발발 이전인 올해 초 책정된 지난 3월 유류할증료 단계는 6단계였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최고 단계로 급등한 것이다.

기존의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올랐던 2022년 7~8월에 적용된 22단계였다.

국내 항공사들은 33단계를 반영해 다음 달 구매하는 항공권에 더하는 유류할증료를 대폭 올릴 예정이다.

가장 먼저 유류할증료를 발표할 대한항공은 이달에는 편도 기준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을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최소 7만5000원에서 56만4000원을 부과한다.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 청다오 노선 등에는 7만5000원이, 가장 먼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 토포



노선 등에는 56만4000원이 붙는다. 전쟁 영향이 있기 전인 지난 3월 부과된 1만3500원~9만9000원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무려 5배가 넘게 뛰어올랐다.

뉴욕, 애틀랜타 노선의 경우 왕복으로 유류할증료를 112만8000원 내야 한다. 3월에는 19만8000원에 불과했다.

아시아항공도 이날 발표한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8만5400원~47만6200원으로 책정했다.

이달 기준 4만3900원~25만1900원에서 2배가량 올랐으며, 3월 기준 1만4600원~7만8600원보다는 최대 6배가 넘게 인상됐다. 미주와 유럽 노선에서는 대부분 최대 단계인 47만6200원이 적용된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다음 달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며칠 내로 발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농협중앙회는 지난 15일 중앙회 본관에서 '2026년 농협 비 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농협, 비 전국협의회 정기총회...쌀값 안정화 주력

농협중앙회는 지난 15일 중앙회 본관에서 '2026년 농협 비 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이보형 농협 비 전국협의회회장을 비롯해 전국 조합장 130여명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총회에서는 정부의 비 매입자금 지원 방안과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농가 경영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최근 양곡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협 DSC는 수확기 벼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관리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쌀값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심전심운동’에 농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